

메타버스·NFT 새로운 예술 바람이 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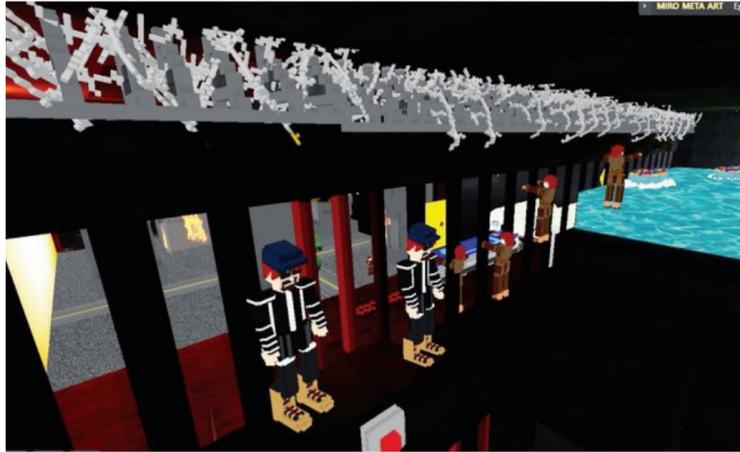
미로센터·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30일~2월 3일 '미로 메타 캠프' 가상세계 창작 '라운드 토크' 등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예술계 풍경 중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다. 메타버스, NFT 기반 예술 플랫폼은 팬데믹으로 가속도가 붙었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디지털 예술시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FT 시장은 지역 작가들에게 아직은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 동구 미로센터가 지난해 개최한 '미로 예술가의 방 NFT 예술 196'은 NFT 아트의 이른바 작품의 NFT화,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기술경험 교육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 동구의 지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미로센터와 (사)국제시각문화예술협회 등이 진행하고 있는 '미로 메타 아트 Miro Meta Art'는 디지털 작품과 NFT 예술시장에서 지역작가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과 디지털 예술시장을 잇는 예술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다. 더불어 예술의 거리 활성화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예술의 거리 월드맵(메타버스) 구축, 국제공모, 쇼케이스 등을 진행했으며 예술의 거리 역사와 전시 및 체험, 국제홍보 및 온라인 예술작품 거래 등도 아우른다.

눈에 띄는 행사는 '더 모멘트 2022 (The Moment 2022)'를 주제로 오는 30일부터 2월3일까지 열리는 '미로 메타(MM) 캠프'다. 지역 작가들과 함께 광주의 경험과 현장을 모티브 삼아 가상 공간안에서 '놀이 형식'의 캠프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 기반의 디지털 아트에 쉽게 다가



'미로메타 캠프'가 메타버스 오픈 플랫폼 '복셀스'에 개설한 '국경과 이주' 가상 공간.

지 못하는 작가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다. 더불어 디지털 아트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캠프 참가자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며 18세 이상 이상 개인 또는 예술가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캠프 결과전인 오프라인 전시는 2월16일부터 28일까지 미로센터에서 열린다.

미로메타 캠프는 현장 답사와 가상세계에서의 창작이 어우러진 'MM 그라운드·Miro Meta Ground'와 라운드 토크인 'MM 토크·Miro Meta Talk'로 운영된다.

'MM그라운드'는 참가자들이 지난해 이슈였던 '코로나19와 뉴노멀', '국경과 이주', '기후변화와 위기' 등을 탐구할 수 있는 광주 지역의 의미있는 장소들을 직접 찾아간다. 이주 문제를 짚어보는 광주 고려인 마을, 불 부족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제 4수원지, 광주 인문 공간 등이다.

이러 참가자들은 3개의 가상 공간으로 구성된 온라인 속 놀이터를 적극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선보인다. 메타버스 형식의 오픈 플랫폼(복셀스)을 통해 누구든지 놀이 형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디지털 아트 제작과 거래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

2일 오후 2시 미로센터 2층 라운지에서 열리는 'MM토크'는 메타버스 환경을 경험한 전문가 중심의 라운드 토크로 '지속가능한 예술생태환경을 위한 전략적 메타버스& NFT'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참가자는 방영리(디지털 아트 작가), 송영민(GBF studio 대표 및 작가) 등이다.

메일(race.miro@gmail.com)과 홈페이지(www.miro-metaart.com) 참고.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새해 시작, ACC 신년음악회와 함께

재단 설립 1주년 기념... 17일 오페라 아리아·뮤지컬 음악 등

ACC 신년음악회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대중적이고 익숙한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음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광현의 지휘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국내 유명 성악가 3명의 협연으로 이뤄진다.



임선혜



김현수



김기훈

이번 신년음악회는 ACC재단 설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관현악, 발레, 오페라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극장 오케스트라로 폭넓은 레퍼토리와 연주력을 자랑한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협연자인 소프라노 임선혜는 '눈부시게 빛나는 소프라노' (미국 뉴욕타임즈)라는 평을 받았으며 서정적인 음색과 당찬 연기력으로 활동 중인 국내 대표적 성악가다.

함께 무대에 서는 테너 김현수는 '팬텀싱어'에 출연 '포르테 디 콰트로'를 결성해 초대 우승팀에 선정됐다. 오페라, 연극, 뮤지컬 등에서 활동을 펼

치고 있으며 4장의 정규 음반 등을 발매했다.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악가인 바리톤 김기훈은 2021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했다. 오페라 전문 채널 '오페라 와이어'에서 선정한 '2021 월드 라이징 스타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슈만 교향곡 3번과 협연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사랑의 묘약'의 유명 아리아,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 대중적인 프로그램의 연주와 노래가 펼쳐진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해 첫날 베스트셀러 1위

만화 '슬램덩크 캠프'

2위 김혜남 '만일 내가...'

새해 첫날 베스트셀러 1위는 스포츠 만화 '슬램덩크 캠프'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에스24가 집계한 조사로 나타났다. '슬램덩크'는 전세계 1억2000만부가 팔린 전설적인 스포츠 만화로 극장판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최근 개봉해 화제를 모았다.

처음 접하는 독자를 위해 원작 만화 전 276화에서 이야기의 베이스가 되는 24화를 엄선해 수록했다.



'슬램덩크 캠프'의 주 구매층은 만화를 즐겨 보던 3040세대로 전체 도서 구매자 중 87% 이상을 기록했다.

2위는 김혜남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 3위는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가 차지했다.

구래 출신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4위를 기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 11~13일 설명회

전남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 '2023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정시공모'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사업설명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오후 2시에 순천과 남양, 담양 등에서 권역별로 3차례 진행된다.

첫날에는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리며 둘째날인 12일에는 남양북합주민센터 4층 공연장에서, 셋째날에는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담빛 농업관에서 개최된다.

또 재단은 지역별 균등한 지원 기회 제공과 권

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는 15인 이상 요청시 찾아가는 설명회도 수시로 열 계획이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공모 신청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 교육과 함께 사업 담당자별 1:1 맞춤형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정시 공모 신청 분야는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이며 총 지원액은 27억 2000만 원이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2월 3일까지 NCAS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문의 061-280-5824. /김다인 기자 kdi@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 13일 박덕규 교수 초청 인문특강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소장 석연경·순천시 중앙2길 11-19)가 올해 첫 인문학 특강으로 박덕규(사진)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연다.



연락처 등을 기재해 10일까지 (wju0219@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10-3638-638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토리가 있는 시·수필 창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13일 오후 3시)는 순천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생활 현장에서의 체험을 문학적 글쓰기로 옮기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박덕규 교수는 지역 주민들의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문예특강을 하고 있으며 이번 강연 또한 그 연장선에서 열린다.

한편 박덕규 교수는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시운동', 중앙일보 신춘문예, '상상'을 통해 시와 평론, 소설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시집 '아름다운 사랑', 소설집 '날아라 거북이', 평론집 '문학과

탐색의 정신' 등을 펴냈으며 편운문학상, 이상화시문학상, 서정시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 구입은 별도. 기성작가를 포함해 시와 수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이름, 나이, 성별, 이메일 주소,

플루트 선율... 김혜경 독주회

13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김혜경(사진) 플루트 독주회가 1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제58회, 61회 호남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김혜경은 광주예술고를 졸업한 뒤 현재 서경대에 재학 중이다. 뉴웨이브 플루트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리더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 제12회 뉴웨이브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협연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날 피아노 반주는 서울대 음악대학원 석사 졸업한 피아니스트 박연선이 맡는다.

가장 먼저 바흐의 둘째 아들인 카를 필립 에마뉴엘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사장조 햄버거 소나타'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어 프랑스 작곡가 이베르의 '플루트 협주곡'을 피아노에 맞춰 펼쳐

보인 뒤 프랑스 작곡가 앙드레 졸리베의 '사자의 노래'와 존 루터의 '엔틱 모음곡'을 무대에 올린다.

예매는 공연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현장에서 가능하다. 전석 1만 원. 010-5338-9935.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